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8
MAY 20 2022

발간년월 2022년 5월 20일(통권 제21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북극 LNG 사업, 아시아 시장에 관심
- 러시아 기업, 수입 대체방안 적극 모색
- 코로나 창궐한 북한, 중국에 지원 요청
-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

주요 통계

-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13~20



주요 동향



러 북극 LNG 사업, 아시아 시장에 관심

그림.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노바텍(Novatek) 시설 전경



자료: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2/95088/>

■ 러시아 석유·가스 공급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에퀴노르(Equinor), 오스트리아 석유회사 OMV,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Exxon Mobil)과 셸(Shell), 이탈리아 석유회사 에니(Eni) 등 세계 최대 원유 업체들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음
-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Gazprom)사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Rusal)사 등 주요 에너지·원자재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정부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학그룹(SINOPEC), 중국 알루미늄(Aluminum Corp. of China), 중국오광그룹(China Minmetals Corp.) 등 국유 기업들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러시아 정부의 석유·가스 공급에 있어 아시아를 향한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중국이 러시아 북극 LNG 사업 파트너로 부상한 배경

- 북극권에 위치한 야말 LNG가 성공적으로 가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북극항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계획이 있음
- 2010년 10월 11일에는 러시아 정부가 ‘야말반도 액화천연가스 생산 개발 종합계획’(1713-p호)을 승인했음
- 러시아 정부는 야말 LNG 사업에 12년간 지하자원 채굴세, 재산세, LNG 수출세를 면제하고, 기업수익세를 13.5% 감면할 것을 제공했으며, 정부는 사베타(Sabetta) 항만과 근접한 인프라를 개발하기로 했음
- 2011년에는 러시아 노바텍(Novatek)의 레오니드 미헬손(Leonid Mikhelson) 회장과 프랑스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의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Christophe de Margerie) 회장이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토탈 사(社)는 노바텍의 지분 12%와 야말 LNG의 지분 20%를 각각 매입했음
- 2013년 3월에는 엔지니어링 기업 프랑스·미국 테크넵FMC(TechnipFMC)사와 일본 건설사업 하청업체 JGC 및 치요다 화공 건설(Chiyoda)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야말 LNG 시설 건설의 사업에 참여했으며, 상당 부분의 선박 발주를 중국에 맡기기로 했음
- 중국 후동중화(Hudong-Zhonghua) 조선은 일본 해운사인 MOL(Mitsui O.S.K. Lines)와 중국원양해운(COSCO Shipping)사의 합작투자로 발주한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LNG 쇠빙선(Arc4급) 4척을 건조한 바 있음
- 2014년 1월에는 CNPC의 자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탐사개발회사(CNODC)가 야말 LNG의 지분 20%를 매입한 바 있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미국이 경제제재의 하나로 노바텍사와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 노바텍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한 가운데 중국은 야말 LNG 사업 개발에 있어 역시 크게 기여하였음
- 2015년 12월에는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가 10억 유로에 야말 LNG 사업 9.9%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실크로드 펀드에서 야말 LNG 사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노바텍에 약 120억 달러 규모의 15년 장기 대출을 제공하였고, 중국은 야말 LNG 사업에 필요한 총 투자액 270억 달러 중 절반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중국이 LNG 84bcm 수입하여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LNG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자, 중국은 LNG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 2014년 대러 제재 이후로 러시아에게 중국은 야말 LNG 사업 개발 파트너로 부상했음. 따라서 중국은 자국 석유·가스 설비 제조업체에 최초로 북극권에서 성공적인 계약을 제공함에 따라 LNG 새로운 공급처 확보와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었음

■ LNG 프로젝트에 북극 캐스케이드(Arctic Cascade) 기술 적용 지연

- 노바텍은 인근에 연간 50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Ob LNG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3년에 완공 예정임. 이는 북극 캐스케이드(Arctic Cascad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바텍의 LNG 공급하는 3번째 최대 프로젝트임
- ‘Arctic Cascade’는 북극의 기후 조건과 더 낮은 주변 온도를 기반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기술인데, 모듈의 제작 및 건설을 국산화하여 전체 액화 비용을 줄이고, 러시아 내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러시아 LNG 시장 개발 전략 승인

- 노바텍은 아시아지역의 LNG 공급기지 설립을 목표로 극동지역 캄차카에 추진하는 LNG 환적 터미널 구축할 예정이며, 해당 터미널은 연간 약 2천만 톤의 LNG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까지 북극항로를 통한 물동량을 8,0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 밝힘에 따라 노바텍은 언급된 물동량의 절반을 처리할 계획이나, LNG 운반선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2021년 3월에는 러시아 정부가 LNG 시장 개발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승인하였음. 이에 야말반도의 님·탐베이스코예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해 연간 2000만 톤의 LNG를 생산할 가능성 있으며, 2030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임

예고로프 아르쎌 러시아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러시아 기업, 수입 대체방안 적극 모색

■ 러 연해주, 차량용 세제 및 화학제품 대량으로 생산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차량용 세제 및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러시아 기업 Resource VL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입주해 생산 공정 현대화 및 제품군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032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의 화학제품 생산량은 연간 5,200톤에 달할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에 약 1,200만 루블(약 16만 달러)을 투자할 것이라고 극동북극개발부 관계자는 덧붙임
- 현재 Resource VL은 0.1-1L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장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극동 러시아 전역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임

■ 아무르 입주기업, 중국과 교역 확대 위해 시설 확충

-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러시아 제조회사 Agromir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1,400 평방미터 면적의 곡물창고, 최대 3,500톤의 용량과 자동환기 및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갖춘 야채 저장고, 다기능 컨베이어 건조 시스템을 갖춘 4개의 시설을 건설해 2025년 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임
- 아무르 특별경제구역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아무르 지역 투자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러시아 농업생산기업 지원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역 특산물의 유통기한 보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재 아무르 지역에서는 극동북극 지역개발 차원에서 3가지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총 39개의 러시아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행된다면 약 1조 7000억 루블(약 227억 달러)의 민간 투자액이 지역 예산에 유입될 것이라 예상함

■ 러 산업통상부, 외국 항공기 부품 수입 대체 추진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현재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외국 항공기 Air Bus 및 Boeing에 대한 적시 수리를 위해 해당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올렉 보차로프 산업통상부는 외국 항공기 부품의 수입 대체화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 알려짐
- 업계 전문가들은 700 시간마다 교체해야 하는 오일 필터와 같은 필수 소모품 목록의 수입 대체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임

■ 연해주 기업, 플라스틱 페트병 수입 대체선 물색

- 극동·시베리아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공급하는 러시아 제조업체 DV Plast의 세르게이 피사레프 대표는 제재로 인한 수입원료 부족 가능성을 감안해 수입대체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 피사레프 대표는 현재까지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고객 수요를 100% 맞추고 있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플라스틱 페트병 원료인 PET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피력함
- 현재 러시아는 국내 소비량의 20% 이하만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국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공급자가 러시아로의 공급을 중단했고, 미국과 직접 계약한 중국 기업들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한 상태로 알려짐
- 기업 관계자는 플라스틱 페트병 원료를 국내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이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기업들도 틈새 시장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함
- 피사레프 대표는 2~3주 이내에 수입 대체 기업들이 새로운 원료 샘플 제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입대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생산기반을 마련을 검토한다고 밝힘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감열 테이프 생산 본격화

- 러시아 극동지역 기반의 제조회사 MACRO는 소매 무역에서 수요가 많은 감열 테이프 생산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단지에 생산 시설을 건설했다고 밝힘
- 극동북극개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제재로 인해 발생한 감열 테이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계획된 생산량은 월 50~100톤 수준이며, 해당 프로젝트에 약 1억 루블(약 134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됨
- 주로 ATM에 사용되는 감열 테이프는 현재 러시아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전무한 가운데 제재로 인하여 유럽 및 한국 제품 수입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수입 대체화 수요가 높은 품목의 하나임
- MARCO 측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극동 연방 관구의 수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베리아 연방 관구에까지 물품을 공급할 계획인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MACRO 측에서는 감열 테이프 생산에 필요한 열 라벨 생산용 기계(제품 포장에 접착되는 스티커) 6대를 구매했고, 원자재 및 완제품 창고, 생산 작업장 및 관리건물을 포함해 생산 및 창고단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fedpress.ru/news/25/economy/2972367?utm_source=yandex.ru&utm_medium=organic&utm_campaign=yandex.ru&utm_referrer=yandex.ru(2022. 5. 15. 검색)
- b) https://minvr.gov.ru/press-center/news/novye_rezidenty_tor_priamurskaya_sozdadut_logistich_eshkiy_tsentr_dlya_uvelicheniya_tovarooborota_mezh/(2022. 5. 15. 검색)
- c) https://iz.ru/1322608/anastasiia-lvova/po-nashei-zapchasti-v-rf-zadumalis-nad-vypuskom-d-etalei-dlia-inostrannykh-lainerov?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2022. 5. 15. 검색)
- d) https://tass.ru/ekonomika/14383873?utm_source=yandex.ru&utm_medium=organic&utm_campaign=yandex.ru&utm_referrer=yandex.ru(2022. 5. 15. 검색)
- e) https://minvr.gov.ru/press-center/news/rezident_svobodnogo_porta_zapustil_vo_vladivostoke_proizvodstvo_kassovoy_lenty_i_planiruet_reshit_vo/(2022. 5. 15. 검색)

코로나 창궐한 북한, 중국에 지원 요청

그림. 마스크 두 장을 겹쳐 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료: 조선중앙TV, 2022년 5월 16일 재(언론 보도 캡처)

■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4월 30일 단둥과 신의주 간 철도 화물운송이 재개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철도 화물운송을 중단하는 것을 북-중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5월 17일 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월 말부터 북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오늘 신규 유열자(발열자)는 27만 명, 누적 발열자 148만 명, 사망자는 6명이라고 보도함
- 북한은 발열자 인원만 밝힐 뿐 확진자에 관한 보도는 없으며, 당국은 국가적 격리 조치를 최대 비상사태 수준으로 격상
- 자오리젠(Zhao Li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전염병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동지이자 이웃이자 친구로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
- 최근 발병은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충분한 코로나 테스트 장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800만 인구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이므로 이러한 대규모 발병은 파괴적일 수 있다고 주변국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

■ 고려항공, 중국에서 백신 수송

-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몇 기가 코로나19 관련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최근 중국을 왕복한 것으로 알려짐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
- 이 항공기들은 화물 중량 50t인 다목적 대형 수송기인 IL-76으로, 북한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송기로 확인
- 북한 비행기가 선양 타오셴 공항에 온 것은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는 대북 방역물자 지원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북측과 상호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음
- 전 세계 언론은 북한의 이 같은 코로나 확산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실제 사망자는 북한의 보도보다 5~6배 더 많을 것으로 보도

■ 세계보건기구, 북한 지원 추진

- 에드윈 살바도로(Edwin Salvador)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대표는 유엔 기구가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적 대비와 대응계획을 개발하는데 북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WHO는 COVAX를 통해 제공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직 북한 보건성의 공식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
- 유엔 인권사무소도 현지 시각 17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사태와 관련해 당국에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를 개설해줄 것을 촉구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

참고자료

- a)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77713/coronavirus-china-keeping-close-watch-explosive-north-korean?module=perpetual_scroll_1&pgtype=article&campaign=3177713(2022.5.18. 검색)
- b) <https://www.nknews.org/2022/05/north-korean-jets-fly-to-china-to-pick-up-pandemic-supplies-sources/>(2022.5.18. 검색)
- c)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north-korea-raises-alarm-confirming-1st-covid-19-84658366>(2022.5.18. 검색)
- d) <https://news.un.org/en/story/2022/05/1118092>(2022.5.18. 검색)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

그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군사 행렬에 등장한 북한의 미사일



자료: 조선중앙통신(2022년 4월 25일)

■ 北, 지금은 핵무기 추진의 적기

- 최근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행동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
- 북한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분열된 국제사회는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해 비난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에 직면
-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불매운동은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에너지 할인 거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
-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배운 것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
-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였을 때 우크라이나는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협정(부다페스트 각서)에서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핵탄두를 양도한 바 있음
-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보호받기 위해 협정에 서명했던

그 나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을 두고 평양은 ‘우크라이나가 탄두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모스크바가 침공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

■ 평양의 까르떼 블랑쉬(carte blanche)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였음
- 미국 고위급 관리들은 상업용 위성 이미지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포착됐으며, 풍계리 지하 시험장으로의 접근을 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예측
- CNN은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국제적 제재는 북한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해석
-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핵 정책 프로그램 전문가 안킷 판다(Ankit Panda)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이고, 다른 한편은 영국, 미국, 프랑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분열되어 있어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통일된 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
- 한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관한 질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삼킬 것”이라고 베이징의 태도에 대해 예측

■ 북·러의 동맹 강화와 현금화

- 브뤼셀 브리예 대학교(Vrije Universiteit Brussel) 유럽연구소(KF-VUB Korea) 의장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는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보이코트함에 따라 북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 현금이 부족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여유분 일부를 채우고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제약을 받지 않는 러시아와 북한은 거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세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를 더 자연스럽게 수익성 있는 관계라고 생각할 것으로 예측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

참고자료

a) <https://edition.cnn.com/2022/05/08/asia/north-korea-nuclear-ukraine-war-lessons-intl-hnk/index.html>(2022.5.18. 검색)



주요 통계



표.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1.4(-1.3%)	6.8(+4.8%)	18.2	+0.9%
북극해	1.3(-12.9%)	6.3(+11.0%)	7.6	+4.3%
발트해	6.8(-11.3%)	11.8(+13.9%)	18.6	+2.3%
아조프-흑해	8.2(+2.9%)	10.5(+2.7%)	18.7	+0.3%
카스피해	0.2(-12.9%)	0.2(-44.6%)	0.4	-32.8%
합계	27.9(-5.5%)	64.4(+7.3%)	63.5	+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13	친환경 천연 셀락(shellac); 나뭇진, 야채 주스 및 추출물 등	11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3.33	0.08
		1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0.57	0.02
14	바구니 세공 재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 제품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42	0.01
15	동식물성 오일, 기타 상품, 식용 오일, 동식물성 왁스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36.73	2.52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73.25	54.41
				64000 - 사할린주	0.45	0.12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31.08	8.4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야주	11.61	10.55
		1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94	0.87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4.55	0.1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99	0.72
				05000 - 연해주	29.34	9.64
16	육류, 수산물로 된 완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57.38	4.8
		11	01-중앙연방관구	61000 - 랴잔주	131.44	10.8
		1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0.83	3.48
17	설탕 및 설탕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4.79	0.94
				45000 - 모스크바시	18.95	5.2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0.3	3.05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40.44	6.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93.72	20.03
				64000 - 사할린주	26.18	5.31
		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6.44	2.62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0.09	0.0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40.4	5.95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55.48	51.38
				05000 - 연해주	63.23	15.99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3.24	1.23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79	2.3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3.34	1.73
				05000 - 연해주	85	20.11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72	0.96
18	카카오 및 카카오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1.38	2.02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64	0.51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1.89	0.24
				05000 - 연해주	27.49	4.06
		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18.88	3.4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14	0.64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95	0.29
				05000 - 연해주	61.75	9.69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8.58	1.56
				45000 - 모스크바시	8.44	1.1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0.6	4.71
				64000 - 사할린주	4.27	1.18
19	곡물, 밀가루, 전분, 우유로 만든 완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24.26	40.06
				46000 - 모스크바주	29.16	21

	밀가루 과자			29000 - 칼루가주	23.89	5.7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2.07	37.1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5.21	17.43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변강주	8.91	0.52
				05000 - 연해주	791.24	267.78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48.33	17.51
				64000 - 사할린주	27.93	8.87
		11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26.4	5.77
				45000 - 모스크바시	332.76	89.7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6.05	37.06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로시스크주	95.32	50.8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097.51	358.87
				64000 - 사할린주	16.97	8.19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57.37	17.64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75.6	54.27
				46000 - 모스크바주	31.63	22.05
				29000 - 칼루가주	175.28	38.58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42.12	62.75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9.53	11.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5.95	0.9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25.51	4.2
				30000 - 캄차트카변강주	22.78	1.38
				05000 - 연해주	615.19	215.23
20	채소, 과일, 견과류, 기타 식물의 일부분을 가공한 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728.47	64.45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6.88	2.31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226.42	10.82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77.11	4.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72.55	43.29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4.45	0.78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07	0.45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849.68	45.4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03.78	8.24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666.91	32.47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르주	423.47	22.8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86.52	5.4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45.12	5.9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01.44	29.25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95.05	9.68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596.53	48.08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3.2	6.58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5.91	4.27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25.55	8.95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4.12	0.2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00.6	45.38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60.58	3.47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4.03	0.39

* 주: EAEU 코드 13~20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9.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13	친환경 천연 셀락(shellac); 나뭇진, 야채 주스 및 추출물 등	10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41.51	1
		12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4.36	0.1
15	동식물성 오일, 기타 상품, 식용 오일, 동식물성 왁스	10	06-시베리아연방관구	69000 - 톰스크주	8.92	0.43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0.46	20.46
				64000 - 사할린주	167.06	132.48
				05000 - 연해주	291.22	199.24
				10000 - 아무르주	145.12	107.5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8.72	15.6
		11	01-중앙연방관구	20000 - 보로네시주	1,509.12	943.2
				45000 - 모스크바시	36.82	23.9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0.26	0.03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36.52	20.46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7.56	9.0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879.72	534.06
				05000 - 연해주	101.14	70.19
		12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66.84	44.19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4.47	12.44
			07-극동연방관구	10000 - 아무르주	430.97	365.5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55.8	55.8
				05000 - 연해주	237.71	173.51
				64000 - 사할린주	85.56	85.56
16	육류, 수산물로 된	10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다주	7.71	0.02

	완제품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13	0.08
		11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22	1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00.16	5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25.21	7.46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다주	44.32	0.23
17	설탕 및 설탕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4.5	2.53
		10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2.49	1.18
		1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84	3.16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3.22	0.27
18	카카오 및 카카오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69.01	19.97
				45000 -모스크바시	4.61	1.48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8.17	2.55
		1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08	34.4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8.3	8.38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46.16	15.39
19	곡물, 밀가루, 전분, 우유로 만든 완제품, 밀가루 과자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12.37	6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6.63	3.32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르폴변강주	52.59	10.6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0.03	0.01
				46000 - 모스크바주	5.2	2.14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8.14	4.62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31	1.9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7.82	4.4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르폴변강주	0.51	0.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66.72	20.5

20	채소, 과일, 견과류, 기타 식물의 일부분을 가공한 제품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8.41	3.48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46	4.17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7000 - 스타르폴변강주	22.93	6.12
		10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23.38	5.76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변강주	10.85	2.93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03	0.01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21.59	6.85
		12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38.52	12.03
				45000 - 모스크바시	7.62	4.85

*주: EAEU 코드 13~20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9. 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5.19. 검색))